

급식실 노동자와 조리 로봇이 함께 안전하게 일하려면

박민영 회원, 직업환경의학과 전문의

작년 초, 한 통의 전화를 받았다. 급식실에 조리로봇이 도입되고 있는데, 이게 과연 안전한지, 조리 노동자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연구해보고 싶다는 내용이었다. 급식실 노동자들의 폐암과 근골격계 질환 문제가 지속되어오던 상황에서 로봇이 개입 수단으로 등장한다는 소식은 흥미롭기도 하고 의아하기도 했다. 흔쾌히 참여를 결정하면서도, 자꾸만 드는 생각은 하나였다.

왜 꼭, 로봇이어야만 할까?

연구를 계획할 때마다 ‘왜 이 주제가 지금 필요한가’를 설득하는 데 가장 많은 힘을 쏟는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이 연구에서는 그 전제가 설득되지 않았다. 이미 조리로봇이 도입되고 있다고 했지만, 그 ‘왜’에 대한 설명이 완전히 납득되지 않는 것이다.

연구가 시작되고, 조리로봇이 1년 가까이 운영된 학교 급식실을 찾았다. 들여다보니, 로봇 설치에 투입된 비용이 여기 한 곳에서만 10억 원에 달했다. 물론 로봇 가격이 비싼 건 알지만, 그 예산이면 지금껏 요구해온 노동자 처우 개선은 왜 되지 않았던 걸까? 사람에게는 인색하고 로봇에게는 관대한 이 투자 기준이 자꾸만 마음에 걸렸다.

로봇을 왜 도입했는지 물었다. 이 학교는 원래 급식실 환기 문제가 심각했지만, 여러 현실적 제약으로 공사 추진이 어려웠다고 했다. 그러던 중 우연히 ‘로봇 시범 사업’을 모집한다는 공고를 보게 되고, 급식실 환경을 개선할 기회를 잡은 셈이었다. 로봇이 들어오면서 화구는 모두 인덕션으로 교체됐고, 환기시설 전면 공사도 함께 진행됐다. 말하자면, 로봇을 들이면서야 비로소 가능해진 환경 개선이었다.

이 연구가 다른 로봇 도입의 직접 효과와 작업 안전에 대한 평가는 보고서에 자세히

담았다. 하지만 내겐 또 다른 인상이 강하게 남았다. 기계가 들어오면서야 비로소 환경이 바뀌는 이 현실, 노동자의 안전과 건강을 위한 투자가 여전히 사람 때문으로는 어렵다는 사실 말이다. 힘들고 열악한 환경을 개선해달라는 요구들이 직접적으로 다루어지고 해소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여전히 안타까운 현실이지만, 로봇이 끌어들이 자본의 투입이 생각했던 것보다 부가적인 파급력이 더 클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 <음식업 서비스 로봇 도입이 직무와 작업장 안전에 미치는 영향> 연구보고서

로봇이 끌어들이 자본, 사람을 위한 개선으로 이어질 순 없을까

본능적으로 기계와 기술에 매력을 느끼는 경향에 대해 연구진들끼리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다. 사람들은 사람의 노동보다는 신기술을 탑재한 기계의 이야기가 더 재미있고, 궁금하고, 호기심을 자극받는 것 같다는 이야기였다. 급식실에 로봇이 들어온다니까 주변 사람들은 눈을 반짝였고, 언론도 그랬다. 새로운 기술, 특히 로봇에는 본능적인 호기심이 작동하는 듯했다. 그러니 정책결정자들이 로봇에 투자하는 선택을 하는 것도 이해는 갔다.

앞으로 사회는 로봇과 AI가 함께할 것이다. 하지만 적어도 지금, 그리고 우리가 만난 급식실에서, 로봇은 사람을 완전히 대체할 수 없었다. 오히려 사람과 함께 일해야만 했다. 그렇다면 지금 당장 필요한 중요한 질문은 “기계와 사람이 함께 안전하게 일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에 대한 고민이라고 생각이 들었다. 결국 이 연구는 그 물음의 시작점에 섰다.

로봇 도입으로 끌어들이 자본이 사람을 위한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기술이 사람을 위한 것이 되도록, 우리는 더 많은 연구와 노력을 이어가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 **알터**



▲ 학교급식실에 도입된 조리로봇. 사진: 박민영